한 불자의 원력, 불교 중흥 기틀 마련

〈願力〉

대한불교진흥원 50주년 의미

동국제강 창업주 장경호 거사
30억여 원 희사로 1975년 설립
불교 현대화·생활화·대중화 기치

학술지원 불교 연구 토대 마련
불교방송 개국으로 포교 현대화
장학사업·청소년 지원 인재 불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대한불교진흥원은 9월 8일 서울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대원 장경호 거사 50주기 추모 및 대한불교진흥원 5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동국제강 창업주 대원 장경호 거사.

한국불교의 교화와 포교, 학술연구, 문화 진흥을 이끌어 온 대표적 불교재단으로 불교의 사회적 저변 확대에 기여해 온 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진흥원은 1975년, 한평생을 '기업보국' 정신으로 살았고 일생의 결실을 고스란히 불교 중흥과 사회 환원에 바친 동국제강 창업주 대원(大圓) 장경호(1899~1975) 거사의 원력으로 설립됐다. 장 거사는 사재 30억 6300만원(현 가치 약 5000억원)을 불교 중흥을 위해 헌납한 뒤 입적했고, 그의 숭고한 삶과 뜻은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한 실천적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진흥원은 1970년대 한국 사회가 산업화와 근대화의 격변기를 겪던 시기, '불교 현대화·생활화·대중화'를 기치로 출범했다. 사찰 중심의 신행에 머무르며 사회와의 접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느낀 장경호 거사는 불교가 시대와 함께 숨 쉬며 대중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품었다. 장 거사는 불교의 현대적 진흥과 후대 전승을 위해 자산을 희사했고, 이어 불교진흥원 설립이 추진됐다.

진흥원이 지난 50년 동안 걸어온 길은 곧 한국불교의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진흥원은 학술 지원 사업을 통해 불교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학자들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해 수많은 불교 전문 인재를 길러냈고 '불교사전' 편찬, 불교 고전 번역, 현대 불교학 연구 지원으로 학문적 기반을 넓혔다. 불교 교양 도서를 보급하고 불교 입문서를 출판해 대중이 쉽게 불법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평론〉 〈불교문화〉 발간은 불교 담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었다. 불교 출판과 언론 활동을 후원해 불교적 가치와 사상을 대중 사회에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BBS불교방송 설립은 진흥원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1990년 개국한 불교방송은 전세계 최초의 불교 전문 라디오 방송으로, 포교 현대화의 상징이 됐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국민에게 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고, '불교는 사찰 안에 갇혀 있다'는 인식을 넘어 생활 속에서 불교를 접하는 획기적 전환점이었다.

군 법당 건립, 군법사 지원, 불교성전 보급 등 군 포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전국에 50여 개 군법당이 건립됐고 수천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와 차량이 제공됐다. 부처님오신날 연합법회를 범종단적으로 개최하고 제등 행렬, 청소년 경연대회, 한일 불교 교류 등의 문화 행사를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강화했다.

장학사업과 청소년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장학사업은 장경호 거사의 신념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야다. 그는 "불교의 미래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있다"는 믿음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인재를 양성했다. 수많은 학생들이 진흥원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갔고, 이는 불교적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됐다.

진흥원은 설립 50주년을 맞은 지금,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향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불교 진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불교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혁신을 위해 AI와 디지털 전법, 국제 포교, 청년 불교 활성화, 친환경 불교, 사회공헌 활동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흥원 측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면서 "불교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재단의 수성과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시대, 불교 공익 재단의 모범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산불 피해 원인 조사, 시민들이 나선다

불교환경연대 등 9월 11일 회견
'산불 피해 조사 프로젝트' 실시

시민단체와 환경 생태 전문가가 나서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의 확산 원인조사에 나선다.

불교환경연대,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9월 11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5년 경북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사진〉 이날 회견에는 불교환경연대,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 홍석환 부산대 교수 등이 함께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31명의 사망자와 4000여 채의 주택 전소, 1조 100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 특히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전각 대부분이 불타며 천년고찰 문화유산을 잃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산불확산의 원인과 부족했던 대응뿐 아니라 최근 비판이 되고 있는 각종 산림사업과의 관계성에 대한 조사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대표 발제자로 나선 홍석환 교수는 연구팀에서 실시한 현장조사와 위성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산불 피해 확산 범위와 피해강도 1차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산불 피해 면적은 9만9000여 헥타르다. 그러나 홍석환 교수 연구팀이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 면적은 11만6333헥타르다. 정부 조사보다 약 15%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로 면적으로 따지면 축구장 2만 3800개, 여의도 면적의 58배에 달하는 규모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산불 대응은 오직 벌목과 조림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한정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대표적 사례며, 인과관계의 과학적 조사와 분석없는 주먹구구 예산 투입"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현장 조사와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산불 초기 확산과정 및 초동진화 실패 원인을 찾는 한편 산불 대형화에 따른 진화대응체계 및 문제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식생유형, 숲가꾸기 정도 및 경과기간, 식생층위별 밀도 및 규격 등 피해강도별 현장 식생특성을 정밀 조사하고 산불 피해 경계부의 특성도 연구할 예정이다.

올해 12월까지 산불피해지역 피해강도별 식생정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산불진행 경과 추적 및 현장대응 문제점 분석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조사자료 정리 및 데이터를 분석하고 2월에는 보고서 작성 및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023501-04-069889 (불교환경연대) 02-720-1654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서울공고 생명존중 MOU

9월 10일, 생명나눔 힘 모으기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9월 10일 서울공업고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생명존중 및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사진〉

이번 협약식은 미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생명나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생명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측에 따르면 2019년 7월 16일부터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들도 부모 동의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기 및 조직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이 개정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공업고등학교는 △서울공업고 생명존중, 생명나눔 동아리 개설 및 운영 △연 2회 이상 교내 헌혈행사와 연계한 장기기증 캠페인 실시 △생명존중·생명나눔 동아리 활동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생명나눔 특강 실시 △법인 소식지를 통한 서울공업고 생명존중, 생명나눔 동아리 활동 홍보 △동아리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 인정 △동아리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영캠프'서 '뮷즈'도 만난다

동국대–박물관문화재단 MOU

동국대가 추진하는 청년불교문화축제 '영캠프'에서 최근 핫한 굿즈 브랜드 '뮷즈(MU:DS)'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9월 11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과 2025 영캠프 이벤트 및 체험 행사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한국 전통과 문화적 가치 확산·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양 기관이 보유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각종 행사 지원 및 공동 협력 등



양 기관 간 정보교류와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을 계기로 9월 16일 진행되는 동국대 영캠프에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상품 브랜드 '뮷즈' 제품을 학생들에게 선보여진다. 두 기관은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반가사유상, 달항아리 등을 모티브로 한 뮷즈 제품을 활용해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유산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캠프 현장 차주 상보〉 신중일 기자

홍대선원, 글로벌 수행도량 도약 선언

9월 6일, 3주년 기념파티
'히말라야 프로젝트' 발표



'글로벌 수행 놀이터' 저스트비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이 개원 3주년을 맞아 새로운 원력을 선포하고 진정한 글로벌 수량도량으로서의 도약을 다짐했다.

홍대선원은 9월 6일 선원 내에서 '저스트비 홍대선원 3주년 기념파티'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파티는 '힙한 불교'의 모델로 한국불교 포교의 새바람을 일으킨 홍대선원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며 함께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행패스 명상 멤버십 출시 △네팔 히말라야 최초 한국 사찰 건립 △싯다르타 순례길 복원 등 홍대선원의 추진할 다양한 '원력'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개된 'JustBe 수행패스'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명상 멤버십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자'를 모토로 편안하게 머물며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수행패스'는 월 10만원 구독료로 한 달간 홍대선원에서 진행되는 명상 프로그램을 무제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평일 템플스테이 1회 권도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24시간 열린 공간인 티라운지에서 차도 즐길 수 있다. 신청은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다.

이날 공개된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저스트비 히말라야'.

'저스트비 히말라야'는 네팔 포카라 인근 히말라야 품디콧 언덕(해발 1400m) 한국불교 최초의 국제선원과 수행마을인 저스트비 히말라야 베이스캠프를 조성하고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 포카라까지 이어지는 160km 순례길을 복원하는 문화·교육·환경 기반의 공익 프로젝트다.

현재 방 6개 규모의 현지 게스트하우스를 임대 계약한 상태로 9월 28일 미륵보살 점안 법회를, 11월 7일 약사여래불 고불식을 봉행할 계획이다. 준한 스님은 올해 안에 모연 캠페인 및 후원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저스트비 히말라야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에는 베이스캠프 부지를 확보하고 순례길 경로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한국과 네팔 간 공식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농협 301-0319-5339-51(홍대선원) 010-5906-2423 임은호 기자

중승대 총동문회, 라오스 환아 지원

9월 8일, 재단 라오스 지부 방문
3000달러…아동병원서 쾌유 기도



조계종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라오스 지부에 스님들의 따뜻한 자비나눔 손길이 전해졌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성행 스님, 이하 총동문회) 라오스 성지순례단은 9월 8일 복지재단 라오스 지부와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을 찾아 어린이들의 쾌유를 기원했다.〈사진〉

회장 성행 스님을 비롯한 20여 명의 동문 스님들은 라오스 성지순례 첫날 일정으로 복지재단 라오스 지부를 방문했다. 스님들은 이 자리에서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난치병 어린이 치료 지원금 3000달러를 라오스 지부에 기부하고,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우유와 건강 과자, 수건이 담긴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성행 스님은 "신심 깊은 불교국가인 라오스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조계종의 도움으로 하루빨리 완쾌하길 바란다"면서 "개인적으로나 종단적으로도 어린이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동문회 스님들은 라오스 지부에 이어 국립아동병원도 방문했다. 어린이들을 만난 스님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완쾌를 기원했다. 임은호 기자

혜민 스님 '다나 밥차' 응원 1000만원 후원

9월 5일 아름다운동행 통해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겠다"



고담선원 주지 혜민 스님이 매주 화요일 서울 우정국로 일대에서 밥차를 열고 노숙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단법인 다나(대표 탄경 스님) 후원에 나섰다. 혜민 스님은 밥차에서 3년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번 지원이 더욱 훈훈함을 준다.

혜민 스님은 9월 5일 서울 다나 대표 탄경 스님에게 밥차 운영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혜민 스님은 "3년 넘게 다나에서 탄경 스님을 도와 봉사활동을 함께 하며 배우는 점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탄경 스님이 진행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탄경 스님은 "혜민 스님이 처음 밥차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몇 개월 갈 수 있을까 생각도 했지만 3년째 묵묵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어 감동이다"면서 "자비심과 나눔을 실천이다. 앞으로도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혜민 스님은 "의료 환경이 열악한 불교국가에서 백내장 등으로 힘든 삶을 이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탄경 스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서 "60세가 되기 전까지 기부금 10억원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006001-04-311125(다나) 임은호 기자